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02. 2077. 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 박물관사람들

2014년 봄 45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전대구 달성 현몽 출토 금동 말안장꾸미개, 국립중앙박물관

## 책을 만들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 무엇이 연한 녹색의 그리움일까...(水)  
바람에 실려 오는 봄기운, 연듯빛 희망 품고 봄 맞으러 가야지...(愛)  
아직 매화는 안 피었지만 매화 구경 원 없이 했습니다...(음)  
고요하나 깊은 울림...(정)

오늘은 날이 폭하다...(鉉)  
立春大吉 建陽多慶...(文)  
2014년, 청마의 기상이 내내 가득하기를...(媛)

## 2014년 봄 45호

---

### 기획 | 말갯춤

- 04 사람이 말과 소통하는 방식
- 08 사람, 말을 부리다
- 11 지상에서 영원으로

### 전시실 산책

- 14 역사, 말을 깨고 나오다

### 회원마당

- 18 옛 그림에 말 걸기
- 21 매화가 나요, 내가 매화다
- 24 돌이 꾸는 꿈

### 학술상

- 26 무령왕릉 출토 탄목 제품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명칭 재고 및 한반도 내 출토 현황 검토

### 숨은 전시

- 31 石羊

### 박물관회 소식

- 32 한국박물관회연맹(KFFM) 소식
  - 33 박물관 후원하기
  - 34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 박물관사람들

발행일 2014년 3월 3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김정태 기획 신병찬 편집위원 강현자·계윤애·길문숙·문정원·  
서유미·정은정 진행 오윤정·서승연 발행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02)2077-9790~3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이 말과 소통하는 방식

글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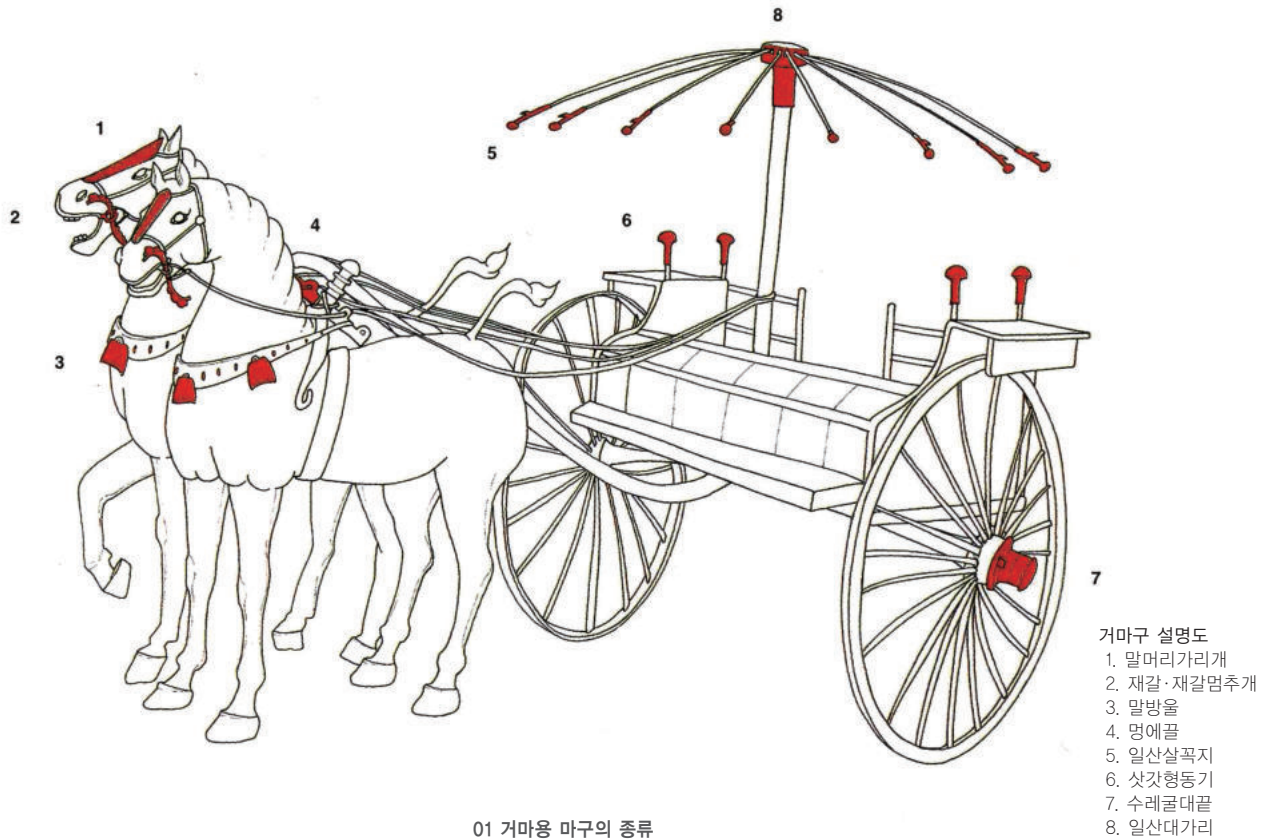
## 말이란?

말은 말목 말과에 속하는 동물로 학명은 Equus ferus caballus이다.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은 모두 길들여진 말이며 원래는 야생 상태로 존재했던 것이다. 말의 조상은 북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확인된 에오히푸스 화석에서 볼 수 있는데 약 5,000만 년 전의 것이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3개밖에 없고 體高<sup>1)</sup> 역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점차 진화하여 현대 말의 직접적인 조상인 에쿠스에 이르렀다. 말의 진화와 더불어 말의 분포지역도 더욱 확대되어 극동 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말은 체고 150cm 내외의 대형마와 130cm 내외의 중형마, 그리고 120cm 이하의 소형마로 나눌 수 있다. 아랍의 말은 대형마이고 몽고의 말은 중형마에 해당하며, 흔히 조랑말로 알려진 제주마는 소형마에 속한다.

야생 상태로 존재하던 말을 처음에는 식용으로 사육했을 것인데 이후 운송수단이나 전투의 도구로 길들이면서 인간과 말의 관계는 급속도로 친숙해지기 시작했다. 말갓춤(馬具)은 이처럼 사람이 말을 길들이는 과정 속에서 보다 쉽게 말을 다루기 위해 등장하게 된 여러 도구의 총칭이다.

## 말, 한반도에 등장하다

신석기시대 이전에 이미 말이 한반도에 등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북한의 회령 오동이나 무산 호곡동 등지에서 발굴된 유적에서 말뼈가 출토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청동기시대에는 말을 가축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때의 말을 乘馬用이나 車馬用이라고 볼 적극적인 증거는 없다. 이보다 식용이나 단순한 운송용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史書에서 전하는 우리나라 말과 관련된 기사 중 가장 오래된 것이 『史記』「朝鮮傳」에 등장한다. 당시 한나라 무제와 긴장관계였던 위만조선은 말 5천 필과 군사에게 먹일 양식으로 협상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數의 眞僞와 상관없이 최소한 기원전 2세기에 국가 차원의 말 사육과 관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三國志』「東夷傳」에서 夫餘에서 명마가 난다고 하고, 濊가 果下馬를 특산물로 현상하고 있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 기원을 전후한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말을 사육하고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주목되는 기사는 역시 『三國志』「東夷傳」 弁辰條에 나오는 “소와 말을 탈 줄 알았다.”는 기사일 것이다. 이것은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당시의 기록이 증명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01 거마용 마구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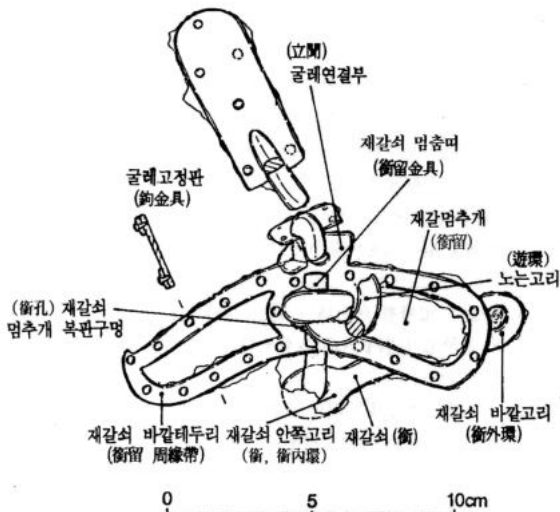
### 말, 탈 것으로 이용하다

사람이 언제부터 말을 식용이 아닌 탈 것으로 부리기 시작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람이 말을 부리기 위해서는 말과 부리는 사람 사이에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총칭해서 말갖춤(馬具)이라 한다. 말갖춤의 분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사용 목적에 따라 승마용과 거마용으로 나누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능에 의한 분류로 말에게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制御具, 사람이 말을 타들 때 떨어지지 않기 위한 安定具, 그리고 말을 탄 사람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裝飾具로 나누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기꽃이나 말갑옷, 말투구 등 전투용으로 개발된 말갖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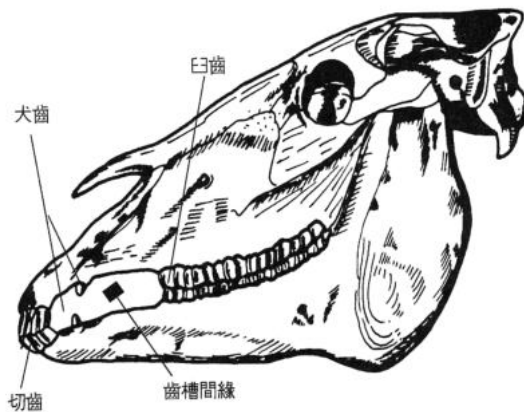
여러 말갖춤 중 말을 부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갈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유물로는 우크라이나 데레이프카 유적에서 출토된 기원전 4,000년 무렵의 재갈멈추개(銜留) 유사품이 있다. 사슴뿔에 뚫려있는 구멍은 굴레를 구성하는 가죽끈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함께 출토된 말 이빨에서도 앞서금니에 재갈(銜)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마모 흔적이 있다. 데레이프카 출토 鹿角製 재갈멈추개 유사품의 출토로 인해 사람이 말을 이용한 최초의 용도가(식용을 제외했을 때) 마차와 같은 것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준

의 견해와 달리 이미 말 자체를 탈 것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 유기 질 재갈의 출토 예는 없으며 금속제 재갈이 주로 확인된다. 재갈은 말의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 부분인 齒槽間緣 부위에 장착되어 말의 입표면 1cm<sup>2</sup>당 최대 300kg 이상의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재갈은 그 어떤 도구보다 승마자의 의지를 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하는 도구로서 말의 적극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재갈(轡, 광의의 재갈)은 함(銜, 협의의 재갈), 함유(銜留, 재갈멈추개), 인수(引手, 고삐이음쇠)로 구성되며 함유의 형태에 따라 鑣轡, 板轡, 環板轡, 圓環轡, 鐮轡로 나누어진다.<sup>2)</sup> 초기에는 주로 표비가 사용되다가 이후 판비나 환판비가 개발되었다. 금속제 銜은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에서도 기원전 1~2세기 무렵부터 서북한을 중심으로 등장한다. 등장기의 마구들은 대부분 청동제이며 간혹 금동제도 있다. 또 이 시기 서북한지역의 말갖춤은 재갈과 함께 수레부속구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등장기의 마구는 승마용이 아니라 거마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서북한 지역 초기 마구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부에서도 마구가 등장하는데 맨 처음 보이는 것은 철제 재갈이며 한반도 북부에 비해 車馬具의 출토 예는 빈약하다. 그렇지만 영남지역의 기원전 1세기대의 초기 마구는 서북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마용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진·변한에서 승마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마구는 거마용일 것이다.



02 재갈(板轡)의 부분 명칭



03 말의 두개골과 치조간연



04 평양 석암리 9호 출토 금동 재갈(鑣轡)



05 평양 석암리 219호 출토 금동 말머리가리개



06 창원 다호리 104호 출토 철제 재갈(鑣轡)

### 말, 갓춤이 완성되다

한반도에서 승마용 말갓춤은 거마용 말갓춤보다 3~400년 늦은 기원후 3세기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한다. 승마용 마구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 바로 철제 발걸이(鎧子)이다. 이때의 발걸이는 발 앞부분을 완전히 감싸는 壺鎧이 아니라 나무의 걸 부분을 철판으로 감싼 輪鎧이다. 실제 철판 안에는 나무로 된 발걸이가 있으므로 철제 율등의 등장 이전에 木鎧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아쉽게도 실물 자료로 발견된 목등은 없다.



07 원주 법천리 출토 발걸이(輪鎧)



08 평산 출토 발걸이(壺鎧)

발걸이의 등장 이후 말갓춤은 더욱 발전하게 되어 굴레, 가슴걸이, 후걸이라고 하는 말띠의 정형이 갖추어지며 이런 말띠를 연결하기 위해 말띠꾸미개 등 각종 연결금구가 등장한다. 또 말띠를 장식하기 위해 말띠드리개나 말방울 등 여러 장식구가 등장한다. 이후 삼국시대의 말갓춤은 기능의 개량보다 장식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비단벌레를 이용한 마구가 등장하는 등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기능만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기원전 1~2세기경에 등장한 마구는 삼국시대에 그 기능이 완성되며 현대의 마구까지 이어지게 된다. 🐾

1) 말발굽에서 말 등까지의 높이를 이르는 말이다.

2) 표비 : 재갈멈추개가 표('자 또는 'S'자모양의 재갈멈추개)로 이루어진 것, 판비 : 재갈 멈추개가 板으로 이루어진 것, 환판비 : 재갈멈추개가 둥근 판으로 이루어진 것, 원환비 : 재갈멈추개가 둥근 고리로 이루어진 것, 알비 : 재갈멈추개가 재갈과 분리되어 있는 것



# 사람, 말을 부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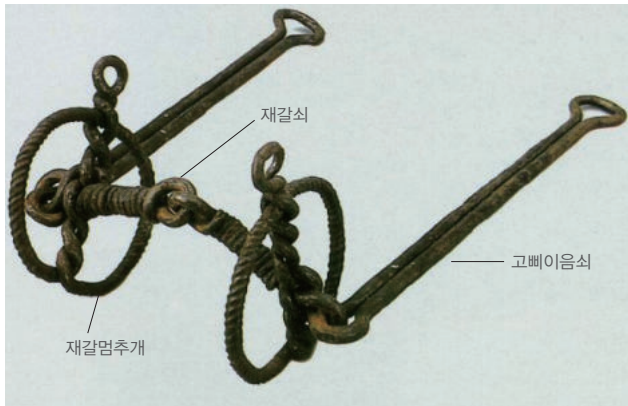
글 계윤애 회원



01 승마용 마구의 종류

경마장을 찾았다. 바람에 갈기를 날리며 천천히 트랙을 돌고 있는 말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단단해 보이는 근육, 군살 하나 없는 매끈한 체형, 바람을 가를 것 같은 긴 다리가 조화를 이룬 완벽한 몸매였다. 출발 신호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힘차게 질주하는 모습에서 역동성과 박진감이 넘쳤다. 기수와 말이 혼연일체가 되어 달리려면 서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았다. 말과 인간의 의사 전달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아주 오래전, 드넓은 들판을 거칠게 달리던 야생마를 인간의 삶 속으로 들여놓을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말을 부리기 위해서는 각종 裝具가 필요하다. 이를 통칭하여 말갓춤 또는 마구라 부른다. 처음에는 재갈만 사용되다 차차 안장이나 발걸이(籠子)와 같은 각종 장구가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었다. 언제, 어디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부터 등장하여 삼국시대인 4~5세기에 이르러 완전히 갖추어졌다. 삼국시대의 말갓춤은 주로 승용으로, 무덤에서 나온 유물과 고분벽화를 통해 그 모양과 쓰임새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말을 부리기 위한 제어구, 말을 땀을 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구, 말을 멋있게 장식하는 장식구로 구분한다.



02 재갈



03 재갈멈추개, 국립중앙박물관

제어구는 말을 다루고 부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구로 재갈, 굴레, 고삐가 조합을 이루어 말을 전·후·좌·우로 방향 전환을 하게 하고 달리거나 멈추도록 제어하는 장구이다. 재갈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쇠(銜), 고삐를 당길 때 재갈쇠가 입 밖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굴레에 연결하는 재갈멈추개, 재갈쇠와 고삐를 연결하는 고삐이음쇠(引手)로 이루어진다. 좁은 의미로는 재갈쇠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재갈쇠의 마디 수에 따라 一連式과 二連式으로 구분하는데, 삼국시대에는 이연식이 널리 사용되었다. 말은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이 부분에 재갈쇠를 물리고 혀를 자극하여 제어하는데, 재갈쇠의 출현 이전에는 굴레만을 씌우기도 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재갈쇠와 재갈멈추개만으로 이루어졌으나 삼국시대에 이르면 고삐이음쇠가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 아시아에서 널리 쓰였다. 굴레는 말의 머리를 끈으로 엮어 매는 것으로 고삐와 재갈이 연결된다. 고삐 역시 재갈멈추개와 고삐이음쇠에 연결된 끈으로 말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굴레나 고삐는 썩기 쉬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예가 없다. 하지만 신라의 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토기와 고구려 쌍영총의 기마인물상 등에서 그 형식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기승자가 말 위에 오르거나 달릴 때 몸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구로는 안장과 발걸이가 있다. 안장은 말의 돌출된 등뼈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장 앞가리개(前輪), 안장뒤가리개(後輪), 기승자가 앉게 되는 안장대(座木)로 이루어져 있다. 안장 위에 씌우는 안장갈개, 안장 아래 깔아 말의 등을 보호하는 언치(下鞍), 말이 달릴 때 진흙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장니가 함께 사용되었다. 안장앞가리개와 안장뒤가리개, 안장대는 재질이 나무여서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예는 거의 없으며, 이들을 연결하고 장식하는 데 쓰인 철 혹은 금동제의 금속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른 시기에는 철제가 대부분이었으나 5세기가 되면 금동제가 주를 이루며 장식이 화려해진다. 식리총에서 출토된 안장은 금동판에 용봉문을 투조한 것으로 삼국시대의 높은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안장과 연결하여 안장 양쪽으로 늘어뜨린 발걸이는 말을 타고 내릴 때는 디딤대의 역할을 하며, 양쪽 발을 엮어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발걸이의 출현은 획기적이었다.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무용총의 벽화에서 고삐를 잡지 않고 자유자재로 활을 쏘는 무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발걸이에 두 발을 힘차게 고정시킴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금속제 발걸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나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을



04 말띠꾸미개, 국립중앙박물관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실물로 발견된 사례가 없어 발걸이의 출현 시기는 분명치 않다. 금속제 발걸이는 기원후 4~5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르지만 늦어도 기원후 400년대 초반에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구려에서 시작하여 전쟁을 통해 백제, 신라, 가야 등지로 전해졌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금속제 발걸이는 주로 옆면과 바닥에 은이나 금으로 상감된 화려한 무늬가 장식되었으며, 발바닥만 걸치는 윤등과 발 앞부분을 감싸 넣는 주머니 모양의 호등이 있다. 신분이 높을수록 호등을 사용한 듯하다.



05 말띠드리개, 국립중앙박물관

말을 장식하기 위한 장구로는 말띠꾸미개(雲珠), 말띠드리개(杏葉), 말방울(馬鈴) 등이 있으며, 모두 삼계라 불리는 끈에 매달아 장식한다. 말띠꾸미개는 끈을 고정하거나 교차하는 지점에 부착하며 기능, 출현 시기와 사용 시기, 출토 지역에 따라 다양성을 보인다. 환형, 판형, 반구형 등이 있으며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쓰인 환형은 실용적인 것으로 가야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말띠꾸미개의 다양한 발전은 신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말띠드리개는 주로 말 엉덩이에서 꼬리 밑으로 두르는 후걸이라는 끈에 매달며 하트 모양의 심엽형, 물고기 꼬리지느러미 모양의 어미형, 타원형과 칼끝처럼 생긴 것을 결합한 검릉형, 종 모양의 종형 등이 있다. 글자, 당초, 용 등의 다양한 무늬를 새겨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신라의 귀족 계급은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말갖춤에 제한을 두어 호화로운 재료의 사용을 금한다는 기록이 있어, 신분이나 위세를 과시하려 말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사치가 성행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06 말방울, 국립고궁박물관

이동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은 현대에는 자동차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일상생활에서 멀어졌다. 지금은 옛 모습을 재현하는 각종 행사에서나 말갖춤을 제대로 갖춘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각종 말갖춤은 선조들의 삶의 중심에서 영광스럽고 호사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음을 보여 주려는 듯 박물관 전시실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



이 수렵도, 무용총



## 지상에서 영원으로

글 문정원 회원

### 지상의 말, 사냥터와 전쟁터를 누비다

야생의 말이 길들여진 것은 기원전 4,000년 무렵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도 말은 이른 시기부터 친숙한 존재였다. 기마민족국가인 고구려는 넓은 영토를 거느린 동아시아의 대국이었다.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이 느껴지는 이미지에 <수렵도>가 있다. <수렵도>는 중국 吉林省 如山 기슭에 있는 5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용총》의 고분벽화 중 일부이다.

<수렵도>에는 마구 중 하나인 발을 디디는 발걸이가 묘사되어 있다. 우리보다 훨씬 늦은 시기인 15세기에 말을

타기 시작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발걸이 없이 말을 탄다. <수렵도>의 발걸이는 말을 오래 탄 우리의 민족적 습관을 잘 보여 준다. 사냥터의 숨 가쁜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수렵도>에서 말은 꼬리를 하나로 한 채 날아갈 듯 달리는 모습이다. 물 흐르듯 지나치는 산세와 팽팽히 젖혀진 근육의 묘사에서 말의 빠른 속도가 생생히 전해진다. 말에 올라탄 조우관을 쓴 고구려인은 자유자재로 커다란 활을 다룬다. 마치 땅을 딛고 서 있는 듯 흔들림이 없다. 예민한 동물인 말이 사냥감인 호랑이를 겁내지 않고 질주하고 있다. 고구려의 뛰어난 기마술 수준을 짐작케 한다.

말을 타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보다 기동력이 앞서고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 기습공격이 가능하고 재빨리 퇴각할 수 있다. 말의 등장으로 달라진 전쟁 양상은 몽골제국의 형성과 관계가 깊다. 몽골제국의 킵차크 한국(1243~1480)은 러시아를 200년 이상 지배한다. 러시아인들이 느꼈던 굴욕은 몽골의 러시아 지배를 '타타르의 멍에'라 부르는 데서 드러난다. '타타르'는 원래 몽골의 한 부족 이름에서 유래했는데 달리는 말 무리의 천둥 같은 소리를 떠올리게도 한다. 그 소리가 러시아인을 포함한 유럽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몽골인과 다름없었다고 한다.

대양을 건너 다른 대륙에서도 말과 전쟁의 인연은 계속된다. 재러드 다이아몬드(1937~, 미국의 과학자, 논픽션 작가)는 저서 『총, 균, 쇠』에서 유럽인 침략자들이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싸움에서 유리했던 이유는 말, 쇠 무기, 총, 갑옷 때문이었다고 한다. 15세기부터 17세기 초에 이르는 '대항해 시대', 유럽은 새 항로를 개척한 후 신세계를 탐험하고 정복했다. 유라시아 구대륙과 아메리카 신대륙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아메리카에는 소수의 라마를 제외하고는 사육하는 동물이 거의 없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에스파냐인들이 타고 온 말을 처음 보게 된다. 그들의

말을 무기 못지않게 신기하고 두려운 대상으로 여겼다고 한다.

가축화가 되기 시작한 때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6,000여 년 동안 말은 살아 있는 이동수단이자 효율적인 군사무기였다. 전쟁 영웅의 초상화와 동상에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여타의 동물과 차별되는 존재감이 유감없이 드러난다.

### 천상의 말, 영혼을 나르고 상서를 전하다

문명사적 전쟁에서 비중 있는 조역이었던 말은 신화의 세계에서도 큰 활약을 한다. 『삼국유사』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백마가 실어 나른 알에서 탄생했다고 전한다. 영웅의 탄생에 역사적 조력자였던 말은 <천마도>의 주인공으로 재등장한다. 1973년 경주 황남동에서 발굴된 <천마총>은 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마도>는 자작나무로 만든障泥에 그려진 말 그림이다. 장니의 쓰임새는 안장 양쪽에 달아 늘어뜨려 말이 달릴 때 흩이 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천마도>는 치켜세운 꼬리로 바람을 가르고 힘찬 발길질로 구름을 헤치며 날아가는 말의 모습이다. 입에서 나오는



02 천마도, 천마총



03 기린, 무용총

날숨의 형상이나 몸통 아래의 회오리 문양은 동물의 실제 능력을 넘는 영험을 가시화한 것 같다. 지금도 선명한 흰 빛에서는 신비한 기운이 느껴진다. 천마는 이승의 영혼을 신고 저승의 세계를 넘나드는 초월적 존재이다. <천마도>에서 무덤의 주인공이 생존 시 누린 영광과 평안이 영원하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이 읽혀진다.

천마총은 10m가 넘는 높이에 바닥 지름이 47m에 이르는 대규모 무덤이다. 20세기에 발굴되어 천년왕조 신라의 신비를 드러내기까지 길고 긴 시간을 지긋이 견디어 왔다. 천마총이 감당해 온 역사의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색다른 상상의 고리를 풀어 본다. 신라의 번영과 거대한 고분의 축조를 지켜본 것은 천마만이 아니었을 듯하다.祥瑞의 동물인 기린이 천마와 함께하지는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상상해 본다. 상서는 ‘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란 의미이다. 왕이 지극한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서 나라가 태평할 때는 자연계에 희귀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기린의 등장이 이에 해당된다. 상상의 동물인 기린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목이 긴 동물과는 관계없는 말과 비슷한 모습으로 전해진다.

<천마도>가 전달하는 이야기 세계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천마도>에는 신라인의 미감도 엿보인다. 천마의 전체적인 선묘는 단순하나 역동적이다. 테두리의 덩굴무늬 장식은 색상과 구성 모두 현대적이다. 널리 알려진 해외 럭셔리 브랜드의 대표적 문양인 구찌의 말재갈이나 페라가모의 편자에 비견될 수 있다. <천마도>는 우리의 심리구조와 미의식을 포괄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 주마간산, 풀이를 새로이 하다

고려시대의 역참제는 문서 전송, 관리나 사신의 행차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적인 교통 체계이다. 조선시대에는 공문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통신 수단인 파발제



04 마패, 국립중앙박물관

가 시행되었다. 역참제와 파발제, 두 제도 모두가 말의 기동성에 근거한다. 관리가 징발할 수 있는 말의 수량을 나타내는 파발꾼의 표식이 馬牌이다. 달리는 말의 모양새가 새겨진 마패는 차츰 위상이 높아져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역사 드라마에서 “암행어사 출두요.”라는 힘찬 소리와 함께 클로즈업되는 마패는 높은 관직의 위엄을 대신했다. 근세 들어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으로 말의 위세는 변화했다. 빛바랜 영광의 흔적은 천마, 은마, 쌍마 등의 관광·운송업체의 상호나 구 서울역사(현 문화역서울 284)의 시계 이름 ‘파발마’에 오롯이 남아 있다.

전통이란 의미와 가치를 반추할 때 更新된다. 인간이 부여해 온 말의 상징성에 새로운 照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미의 走馬看山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본다. 말은 힘차게 질주한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너른 세상을 바라보는 상상을 한다. 말의 생동감에 힘입어 찰나에 스치는 무수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새길 수 있을 듯 하다. 주마간산의 뜻풀이에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한 통합적 사고를 덧붙여 본다. 2014년을 힘차게 열어 놓은 靑馬. 갑오년의 주인공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

# 역사, 알을 깨고 나오다

글 강현자 회원



이 옹관, 국립나주박물관

나주박물관은 외형부터 노란 알 모양의 형태를 하고 관람객을 맞는다. 박물관 전시실에서 옹관을 알고 나서야 박물관 외형의 의미를 깨닫는다. 처음 옹이를 보는 순간, 아니 두 개의 옹이가 서로 맞물려 있는 옹관을 보는 순간, 알을 떠올리는 것은 몇 초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깨어 나오기 위해 알 속에 무언가 웅크리고 있는 것만 같은 형태다. 사람이 만든 알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 떠오른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당시 옹관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일찍이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깨뜨려야 할 알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옹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4~5세기, 나주 반남을 중심으로 한 영산강 유역에 독특한 옹관고분이 발달한다. 신석기, 청동기시대에는 토기 하나만을 세워서 묻는 외옹관을 사용한다. 이어 초기철기시대에 두 개의 항아리 아가리를 맞붙여 옆으로 묻은 이음옹관이 등장하면서 고유한 형태의 옹관 문화가 형성된다. 또한 옹관고분에서 가족 또는 혈연의 관이 한 봉분 안에 2~10기 이상 안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매장제도로 발달하게 된다.

옹관고분 문화를 형성한 사람들은 한반도 서남부에 자리 잡았던 마한, 혹은 그 후예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면서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킨다.

그들은 왜 옹관이라는 독특한 매장을 하였을까? 궁금증을 풀어 보면, 이는 대형 옹관의 모습이 마치 알과 닮았다 하여 재생과 부활을 기원하는 마한인들의 생사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대형 옹관을 만들 수 있는 토기 제작 기술이 독특한 매장문화를 발달시켰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시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 썩지 않는 관을 만들려 했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옹관 표면에 새겨진 톱니바퀴 문양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재생과 부활을 의미하는 등, 옹관의 의미가 그들이 추구하고 기원하는 영생에 부합되기



02 옹관, 국립나주박물관



때문이다. 이처럼 옹관의 모양이 알처럼 생긴 것은 당시 사람들도 부활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제야 영원한 생명을 품고 새로운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나주박물관 외형의 깊은 뜻을 알 것 같다.

나주박물관에서 옹관묘에 대한 지식을 쌓은 뒤 반남고분군으로 향한다. 반남고분군은 나주시 반남군 신촌리, 대안리, 덕산리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분은 모두 34기이다. 이 중 신촌리 고분군은 대표적인 백제의 옹관묘로 알려져 있다. 길이가 작게는 70cm에서 크게는 150cm의 커다란 옹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진다. 영산강 유역의 옹관은 인근 지역에서 점토를 채집하여 만든다. 옹관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뒤집어놓기방법으로 바닥을 만든 뒤, 다시 바로놓기방법으로 돌려서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양을 완성한 옹관은 그늘에서 충분히 말린 다음 가마에서 구워 완성된다. 이렇게 만든 옹관에는 시신과 함께 사후세계를 함께할 다양한 유물들을 부장한다.

옹관에 넣은 부장품들을 살펴보자. 1917년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는 9기의 옹관이 발견된다. 항아리 내부의 바닥 쪽에 놓여 있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옥으로 만든 팔찌, 구슬, 꾸미개 등 각종 장신구를 비롯하여 화려하게 장식된 큰칼과 창, 도자, 도끼, 그리고 뚜껑이 있는 단지와 접시 등 다양한 유물이 함께 묻혀 있다. 금과 옥을 비롯한 화려한 장식품들을 볼 때, 당시 가장 유력했던 지배자의 가족 무덤으로 추측된다. 특히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은 당시 지배계층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철기, 덩이쇠



03 금동관, 국립나주박물관



04 새발무늬항아리 부분, 국립나주박물관

등은 당시 지배층이 철기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당시의 문화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백제를 비롯하여 가야, 일본과 관계 깊은 토기들도 같이 부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부 세력과의 교류를 통해 확보한 강력한 힘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옹관에 넣어 매장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영생하기를 기원한 것이리라.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알부터 깨고 나와야 하듯,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알 속에서 힘차게 태동하고 알을 깰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이어, 1930년에 발굴된 덕산리 고분군에서 옹관의 형태와 성격이 밝혀진다. 고분의 바깥은 하나의 봉토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3개의 옹관이 묻혀 있다. 그리고 무덤 둘레로는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이 있다.

옹관을 수십 기씩 묻을 수 있는 분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무덤을 만들 때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관을 묻은 것이 아니라, 먼저 잘 다져진 기반 위에 주변의 도랑에서 파낸 흙과 진흙을 교대로 쌓아 올린다. 둥근 모양, 네모 모양, 사다리 모양으로 쌓아 봉분을 만든 뒤 그 위에 옹관을 묻는다. 이 옹관들은 한 번에 묻힌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추가로 매장된다. 옹관을 추가하면서 흙을 더 쌓아 올려 분구를 옆으로 늘리거나 위로 높인다. 이렇게 하여 직경 30~40m에 이르는 대형 고분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영산강 유역에서 발달한 독특한 옹관 매장은 6세기 중반경부터 백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지역에 백제 계통의 석실분이 등장하고, 옹관묘가 점차 소멸하게 된다. 이는 영산강 유역의 세력이 백제의 체제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시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 썩지 않는 관을 만들어 영원히 살아보고자 했던 마한인들은 영원히 옹관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 낸 독특한 옹관문화는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이 추구했던 영생의 꿈은 이루어졌다. 백제시대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발달시킨 선조들의 생사관에 대한 사유가 우리의 역사를 빛내는 순간이다. 🐼



05 나주 덕산리 고분군



01 신사임당, 수박과 들쥐, 국립중앙박물관

## 옛 그림에 말 걸기

글 김혜영 회원

나는 그림 보는 일을 무척 좋아한다. 아무 생각 없이 눈앞에 펼쳐진 그림을 바라보며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는 걸 좋아하지만, 때로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림에 숨겨진 상징이나 알레고리를 찾아내고 배경이 되는 시대나 장소로 상상 여행을 떠나는 것도 즐겁다.

박물관 특설강좌를 듣기 전에는, 서양미술은 친숙하게 느껴지는 반면 동양화는 낯설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강좌를 통해 만난 우리의 미술과 문화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따스한 어느 봄날, 박물관에서 느긋하게 옛 그림들을 보다가 신사임당의 <초충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워낙 꽃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특히 '수박과 들쥐'라는 그림에 말을 걸고 싶어졌다.

신사임당(1504~1551)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내조의 여왕에 자식 농사 잘 지은 현모양처이다. 그러나 유교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가부장 사회인 조선 시대에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타고난 그림 솜씨를 갈고 닦아 시서화에 뛰어난 대표적 여성이 되었다. 신사임당의 대표작은 단연 <초충도>이다. 이 그림에는 꽃, 동물, 과일나무, 나비, 잠자리, 벌 등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여성의 외출과 여행이 힘들었을 시대 배경을 감안하면 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사물들이 가장 좋은 그림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초충도>는 화면 구성에서 탁월한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 그림들의 구도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화면 중앙에 주가 되는 식물이 있고, 좌우에 보조 식물이 있으며, 하단 부분에 동물이나 곤충이 등장하고, 화면 상단에는 잠자리나 나비가 날아다닌다. 자세히 보면 동물이나 곤충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그림의 색채는 빨간색과 초록색, 주황색과 파란색 등 보색 대비의 효과를 이용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구도에 화사함과 생기를 부여한 것이 눈길을 끈다.

<초충도> 가운데서도 자꾸 눈길을 붙잡는 ‘수박과 들쥐’에게 다시 말을 걸어본다. 둥글넓적한 수박이 너무나도 정겹다. 그런데 수박의 무늬가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수박과 다르다. 500년 전, 조선 시대 수박은 이랬나 보다. 쥐가 파먹어 빨간 속살과 씨를 드러낸 모습이 내 말에 대답하는 사람의 입 모양을 연상시킨다. 쥐 두 마리가 열심히 수박씨를 갉아 먹고, 수박 옆에는 페랭이꽃 두 송이가 하늘거린다. 수박 덩굴 위로는 화려한 나비 한 쌍이 평화롭게 날고 있다.



02 정선, 서과투서, 간송미술관

수박은 씨앗이 많아 多産의 의미를 가진다. 수박 덩굴이 뻗어 나가는 모습 역시 자손이 덩굴처럼 끊이지 않고 많이 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나비는 부부의 화합과 장수를 뜻하고, 쥐는 옛 그림에서 재물을 상징하지만 12간지 중 아들子を 뜻하므로 젊은이나 자식을 의미할 수도 있다. 패랭이꽃은 ‘순결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는데, 꽃에 얽힌 전설 때문인지 청춘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림을 읽다 보니 신사임당은 그림 속의 대상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그림과 달리 ‘수박과 들쥐’는 내게 五感を 느끼게 한다. 알록달록 예쁜 나비가 사방사방하게 날아다니고, 들쥐가 수박씨를 사각사각 갹아 먹는 소리가 패랭이꽃의 향기를 타고 내 귀에 들리며, 여름날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맛보는 수박의 달콤함과 시원함이 느껴지는 즐거운 착각.

수박과 들쥐를 주인공으로 한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 신사임당이 ‘수박과 들쥐’를 종이에 그린 때로부터 200여 년 후, 진경산수의 대가 겸재 정선이 만년에 그린 〈西瓜偷鼠〉이다. 신사임당의 그림과 달리 비단에 다소 무거운 톤으로 채색된 이 그림은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탐관오리를 쥐에 비유하여 당시 시대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두 작품 모두 훌륭하지만 나는 신사임당의 ‘수박과 들쥐’가 더 끌린다. 부드러운 색채, 그림의 소박함과 아름다움은 물론, 미물에도 애정을 갖고 생명력을 부여한 감성과 더불어 언제 보아도 느껴지는 정겨움과 그림에 나타난 신사임당의 덕성이 나를 사로잡는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에 어울리는 시가 떠오른다. 비단 〈초충도〉에만 어울리는 시는 아니다. 이 시를 옆두에 두고 그림을 본다면 처음의 낯설과 어려움이 친근함과 호감으로 바뀔 것이다. 바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다.

##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렵고 낯설던 우리 옛 그림이 볼수록 좋아진다. 이전에 미처 몰랐던 매력을 이제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다시 보인다. 단순히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철학과 내면 세계를 담고자 했던 선조들의 그림에 대한 나의 말 걸기는 계속될 것이다. 🐾

# 매화가 나유, 내가 매화다

글  
서유미  
회원



01 전기, 매화초옥도, 국립중앙박물관

도대체 얼마 동안 걸어온 것일까? 길 양쪽의 나무들은 가지만 양상한데, 고개 너머에서 바람을 타고 정체 모를 좋은 향기가 내려온다. 고개에 올라서자 발밑으로 장관이 펼쳐진다. 꽃이 만발한 매화나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 아까부터 나던 그 향기는 梅香이었구나. 여태 매화축제 한 번 못 가 봤는데 결국 이 외진 곳에서 한가하게 즐기겠군. 저 멀리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가면 산 밑에 눈처럼 피어난 매화에 둘러싸인 옛날 집이 한 채 있다. 어디서 본 듯한 풍경인 것 같아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영락없이 梅花書屋圖와 같은 구도이다. 가까이 가니 학창의를 입은 학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시를 읊고 있다.

“玉色天然超世昏 천연한 옥색은 세속의 어두움 뛰어넘고  
高情不入衆芳騷 고고한 기질은 못 꽃의 소란스러움에 끼어들지 않네.”

“못 보던 얼굴인데 낯시오?”

“저는 서울에 사는 서가입니다. 혹시 퇴계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소. 그런데 내가 퇴계인 것을 어떻게 아셨소?”

“말씀 낮추십시오,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방금 읊으신 시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초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허허, 자네 행색을 보니 그렇겠네그려.”

“선생께서 매화를 매우 사랑하셨던 것으로 유명하신데, 이렇듯 매화에 둘러싸여 사시니 매일매일이 즐거우시겠습니까.”

“내 평생 즐거움이 많으나 매화를酷愛하니, 가끔 예전처럼 매화꽃 언저리를 몇 번이나 돌고 밤 깊도록 오래 앉아 일어나기를 잊어 옷에 가득 매화 향이 스며들기도 한다네. 자네 雪谷의 매화도를 본 적이 있는가? 어몽룡 말일세.”

“네, 月梅圖는 지폐에 새겨질 정도로 유명하고 그의 그림은 저희들에게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가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고고한 매화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다네. 이렇게 눈이 내린 것같이 흐드러진 매화는 나로부터 이백 년 정도 지난 뒤의 후배들이 즐기던 것이었지만, 나 또한 이런 광경이 참 좋다네.

나가서 더 거닐어 보게나. 설곡을 비롯해 매화를 좋아하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다네.”



02 어몽룡, 월매도, 국립중앙박물관

선생에게 인사를 하고 나와 정처 없이 걷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설곡 어몽룡이 여기서는 흐드러지게 핀 화려한 매화를 그리고 있었다. 梅花飲으로 유명한 단원 김홍도는 역시나 잘 생긴 매화나무 아래서 지인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仁齋 강희안은 원예에 대해 정리한 그의 저서인 『養花小錄』 개정판을 만드느라 바빴으며, 梅月堂 김시습과 梅竹軒 성삼문은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다. 자신의 호에 ‘梅’자를 붙인 사람들은 죄다 이곳에 집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유난히 큰 소리로 시를 읊는 목소리가 들려 무심코 따라가니 ‘梅花百詠樓’라 편액이 달린 집 누마루에서 나는 소리다.

“시 읊는 소리에 이끌려 이곳에 왔습니다.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마침 목이 말라 梅花片茶를 마시려는 참이었는데 잘 오셨소. 이리와 함께 마십시오.”

집 안에 들어서니 방 안에는 흥백 매화가 흐드러진 커다란 8폭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집 주인이 앉아 있던 누마루에는 매화 그림과 매화 시를 적은 종이들이 흩어져 있는데, 사방에는 붉은 안료가 튀어 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벼루와 먹은 매화를 읊은 시가 새겨져 있는 梅花時鏡硯과 梅花書屋藏煙이겠고 이 사람은 梅叟 조희룡이겠구나.

“이 집 주변에는 유난히 홍매가 많이 피어 있군요.”

“매화가 군자의 상징이기에 홍매가 백매보다 못하다는 말이 정론같이 전해지지만 나는 활짝 피고 흐드러진 붉은 매화도 좋소. 나는 어떠한 이념보다는 나 자신의 정감을 표현하는 것뿐이요. 나는 매화에 미친 매화 ‘癡’이요. 매화를 통해서 이상향을 꿈꾸었지.”

“박물관에서 선생님의 오래된 매화도를 보았을 때도 좋았지만 이런 선경에서 조금 전에 그린 매화도를 보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차를 마시고 시를 듣고 그림과 매화를 감상하다 밖을 보니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나무를 돌보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百花菴 유박 선생이요. 실은 이곳의 만발한 매화나무들은 대부분 저분이 심고 가꾼 것들이니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 안 그래도 선생에게 볼 일이 있는데 같이 가서 만나 보시겠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주변에 핀 매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화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백매, 홍매만 구별하는 내가 무식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화를 마친 유박 선생이 각각의 매화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준다. 고매, 중엽매, 홍매, 원앙매 등 선생이 분류한 것만 스물한 종이 있다고 한다. 매화는 어떻게 가꾸어야 좋은지, 원하는 시기에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모든 꽃에 대하여서도 해박하지만 매화를 화품 일등에 넣은 만큼 매화에 대한 사랑 역시 일등인 듯하다. 그는 매화에 대해 “강과 산의 정신, 태곳적 면목”이라고 품평했다.

“아무리 꽃이 좋지만, 이렇게 많은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시려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타고난 성품이 졸렬하여 스스로 판단해도 쓸모없는 사람이라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종류의 꽃을 구해다가 심고 돌보며 관찰하다 보니 이들이 나의 스승이자 벗이자 손님이 되었지. 과거 백화암에서 화원을 운영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주더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매화에 반쯤 미친 사람들 인지라 기꺼이 나서서 함께 매화를 돌본다오.”

매화를 감상하느라 계속 고개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고개가 많이 아프다. 꽃구경도 쉬운 일이 아니군. 이 제셔야 여기가 어디길래 시간을 초월하여 조선의 매화벽들이 모여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몸을 돌려 이곳이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매화가 아니라 눈앞에 잔뜩 쌓여 있는 매화에 대한 책들만 눈에 들어왔다. 정신 차려 보니 나는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고개가 아팠던 이유는 턱을 괴고 책을 읽다가 잠들었기 때문이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 하는데, 매화 꿈만 요란하게 먼저 꾸었구나. 🌸



03 조희룡, 홍백매 8곡병, 국립중앙박물관



# 돌이 꾸는 꿈

글 정은정 회원



01 라오콘군상, 바티칸박물관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 로마와 국경을 잇대고 있는 바티칸은 역대 교황들의 보고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이로운 박물관으로 먼저 다가섰다. 그리고 이야기의 힘으로 형식이 재미를 만드는 다양한 시대를 안내했다.

처음이라는 설렘은 나약한 인간의 처절한 감정을 온몸으로 발산하는 <라오콘>과 만나며 트로이라는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제관 라오콘은 신에게 버림받은 채 자신의 허리를 물고 휘감는 뱀이 주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그는 참혹한 얼굴을 하고 뱀에게 온몸을 감겨 실신할 지경인 작은아들과 도움을 청하는 큰아들의 공포스러운 눈길 앞에서 무력한 아버지로 절규한다. 로마 티투스 황제의 정원에서 발굴된 <라오콘>은 대리석이라는 부재를 통해 절망이란 인간의 감정을 역동적이며 극적으로 표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에 입각한 비장미의 극대화는 르네상스가 부활시키고자 했던 헬레니즘의 리얼리티와 만났다. 르네상스 조각의 정점을 찍었던 미켈란젤로는 <라오콘>을 ‘예술의 기적’이라 평했고, <최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를 형상화할 때 라오콘의 굵은 팔을 차용했다고 한다. 또한 바로크시대의 예술가 조반니 로렌초 베르니니는 이 작품을 ‘고대 예술의 절정’이라 칭송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 베드로 성당이 있다. 성당의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놀라운 힘이 숨을 멎게 했다. 특히 입구 오른쪽을 장식한 <피에타>가 눈길을 끌었다. 미켈란젤로가 26세에 만든 작품으로 1972년 치기 어린 한 청년에 의해 망치로 수난을 당한 후 안타깝게도 유리막 너머로만 볼 수 있었다. 슬픔을 내면화하는 듯 성모 마리아의 처연한 모습은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다가왔다. 품에 안긴 예수의 잠든 것 같은 편안한 자세는 마리아의 오른발을 고인 돌에 비밀이 숨어 있었다. 성모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모습의 피에타라는 조각에 한없는 공감대가 느껴졌다.

성당 곳곳을 채우고 있는 베르니니의 손길은 다양한 대리석을 사용해 <교황 알렉산데르 7세>를 조각하면서 최고의 빛을 발한다고 생각됐다. 성 베드로 성당을 매개로 한 두 사람의 돈독한 인연은 베르니니의 마지막 작품인 이 기념비를 완성하게 했다. 80세의 거장은 검은 대리석으로 기단을 만들어 무겁고 음습한 느낌을 주었고 붉은 대리석으로 늘어진 천을 물결치듯 형상화하여 감쌌는데, 그 속의 청동 해골이 모래시계를 높이 쳐들어 죽음의 시간을 알리게 했다. 섬뜩한 인상은 흰색의 대리석으로 빛은 네 여신과 교황의 조각상이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과 만나면서 오히려 성스럽게 느껴졌다. 인물 군상들로 걱정의 순간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던 베르니니는 기둥 사이의 벽감을 통해 연극무대와 같은 공간을 연출하고 있었다. 특히 지구를 밟고 있는 진리의 여신 발가락이 당시 가톨릭을 탄압하던 성공회 국가인 영국을 누르고 있는 부분에서 생동감과 더불어 역사의 한 장면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의 기교와 폭은 우리와 비교할 때 그 기복이 훨씬 크게 느껴졌다. 그 변화무쌍함이 고대 <라오콘>으로부터 '대리석 안에 숨은 천사를 해방'시키고자 했던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에 이르기까지 천재 예술가들을 탄생시킨 것 같다.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기 위한 매개로 활용된 그들의 돌은 화려한 손재주를 과시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이 보편적인 대중의 첫인상에 각인되고 감동을 배가시키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반면에 가지고 있는 소박한 돌을 부재로 '떡 주무르듯' 만들어 낸 우리네 솜씨는 여행 동반자인 아들의 말처럼 다분히 매니아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 매력이 몽클한 떨림으로 다가서는, 그래서 차마 발걸음을 떼어 놓을 수 없는 그 느낌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메이리로 답해왔다. 그것이 천재 조각가들의 농밀한 작품들 앞에서 자연이 선물한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한 미소가 번지는 서산마애삼존불을 떠올리는 까닭이다. 솜씨를 내는 방법과 효과는 두 문화권이 현저하게 달랐다. 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 고요 하나 깊은 울림을 자아내는 예술혼이 아름다움으로 수렴되는 과정에는 경중이 없었다. 역작을 완성하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조상들의 놀라운 열정을 기억한다면 현재를 지키는 우리들도 삶의 뒷모습이 누추해지지 않도록 더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 🍷



02 미켈란젤로, 피에타, 성 베드로 성당



03 베르니니, 교황 알렉산데르 7세, 성 베드로 성당

# 무령왕릉 출토 탄목 제품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명칭 재고 및 한반도 내 출토 현황 검토

글 유혜선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1. 머리말

무령왕릉에서는 동물모양 장식(獸形佩飾)을 비롯하여, 대추모양옥(棗玉), 목걸이(頸飾) 등과 같이 ‘炭木’ 혹은 ‘炭精’으로 만든 유물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무덤에서 ‘탄목’ 제품이 다량으로 출토된 예는 없었으며, 간혹 낙랑 무덤에서 동물모양 장식이 1~2점씩 출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탄목’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고, ‘탄정’이란 용어는 중국 특히 남조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탄목’과 ‘탄정’은 같은 뜻을 가진 용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무령왕릉 출토품과 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중요한 부장품의 재질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탄목’이나 ‘탄정’이란 용어 대신에 이 출토품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물리적 특성 등이 고려된 명칭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탄목’ 또는 ‘탄정’의 재질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비파괴 분석이 가능한 유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정확한 재질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에서 출토된 ‘탄목’ 또는 ‘탄정’ 유물의 예들을 정리하여 출토 지역 및 시기적인 특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 II. '탄목' 또는 '탄정'의 재질 검토

### 1. 문헌을 통한 용어의 검토

우리나라에서는 탄목이란 물질을 '석탄'이나 식물성 樹脂化石인 '호박'과 같은 범주의 것으로 간주하여 '黑色樹脂' 또는 '黑色炭化樹脂製', '石炭製' 등으로 지칭하였다. 중국의 일부 고고학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 흑색물질을 '煤精'이나 '煤製品'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영어로는 제트(jet)로 표기하였다. '제트'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비교적 알려진 내용이 많은데, “늘에 매몰된 나무가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炭火 과정에 있는 물질로, 갈탄의 일종이며, 검은색으로 비중 1.30~1.35, 굴절율 약 1.66이고, 영국 요크셔 해안의 위트비(Whitby)가 중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sup>1)</sup> 이 흑색 물질을 중국의 백과사전(百度百科)에서는 '흑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약 1억 8천만 년 전(주라기)의 고대 식물이 물에 흘러 퇴적되어 토양의 압력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화석화되어 만들어진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 2.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재질 검토

#### 가. 분석 대상품

한반도에서 출토된 탄목 제품 중에서 평양 낙랑토성, 김포 운양동, 서울 풍납토성, 서산 부장리, 공주 송산리,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 등 27점에 대한 비파괴 분석을 수행하였다.



01 무령왕릉 출토 목걸이(왕)



02 무령왕릉 출토 동물모양 장식



03 무령왕릉 출토 대추모양 구슬

#### 나. 분석 방법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재질의 특성 확인이 가능한 겉보기 비중 측정법과 비파괴 성분 분석기인 X-선형광분석기(이하 XRF)를 사용하여 성분 조성상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결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이하 XRD)을 실시하였다.

#### 다. 분석 결과

무령왕릉 출토품 등에 대한 비중 측정과 X-선 회절분석 결과 ‘탄목’이나 ‘탄정’ 유물은 비결정질이며, 비중이 1.3~1.4 정도로 확인됨으로써 문헌에서 언급되어 있는 ‘흑옥’ 또는 ‘제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성분 분석 결과, 평양 낙랑토성, 김포 운양동, 서울 풍납토성, 서산 부장리 출토품의 성분은 Ca의 함유량이 3wt%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 출토품에서는 Ca의 함유량이 10wt% 이상으로 높았다. 즉, Ca의 함유량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높으며, 갈탄보다는 무연탄에 가까운 탄소 함유량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낙랑시기~한성백제에 이르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흑옥은 Ca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연탄에서 유래한 흑옥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 출토품과 같이 웅진백제 시기의 흑옥은 상대적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낮은 갈탄에서 유래한 흑옥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석 결과 ‘탄목’이나 ‘탄정’ 유물은 비결정질이며, 비중이 1.3~1.4 정도로 확인됨으로써 문헌에서 언급되어 있는 ‘흑옥’ 또는 ‘제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에서 출토된 ‘탄목’ 또는 ‘탄정’ 유물의 예들을 정리하여 출토 지역 및 시기적인 특성에 대한 검토 결과 흑옥 제품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서 모두 확인이 되는데, 중국의 경우는 요령성이나 내몽골자치구 등과 같은 북쪽권역은 물론이고, 남경이나 진강 등 남쪽권역에서도 출토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의 경우는 평양 지역의 낙랑유적과 백제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경향이 있다. 즉, 출토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낙랑, 서북한(평양 낙랑토성 등) → 마한, 한성백제(김포 운양동, 서울 풍납토성, 서산 부장리) → 웅진백제(공주 무령왕릉, 송산리) → 사비백제(부여 왕흥사지, 능산리 절터)로, 특히 백제권에서 주로 출토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앞으로 사비백제 시기의 흑옥 제품을 비롯하여 다른 시기 또는 지역의 출토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흑옥 제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김원사, 『寶石學』, p.315, 도서출판 祐成, 2004.

### 심사평\_ 강대일(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교수)

본 연구는 탄목, 탄정, 매정 혹은 매제품(jet) 등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웠던 탄목 제품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한 연구로서, 무령왕릉 출토품의 의미와 가치를 재고시킬 수 있는 대단히 의미 깊은 연구라 생각한다.

문헌을 통한 용어의 검토와 더불어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정확한 참고문헌의 표기 연구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인 훌륭한 논문이다.

다만 연구 대상 유물 중 X선 회절분석 결과 무연탄에서 흑연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물질로 추정되는 무령왕릉 출토 탄정 조각(no.33)은 저자가 본 연구에서 ‘흑옥’으로 정의한 물질의 물리적 특성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별개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石羊,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물 정원

## 石羊

어린 시절 왕릉으로 소풍을 가 봤던 사람이라면  
왕릉 울타리를 넘어가 석물을 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기에 그다지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한다.  
어떤 석물은 자리를 옮겨 가옥 마당의 장식품이 되기도 한다.

박물관 석조물 정원을 거닐다 보면 빨이 멋진 두 마리의 양을 만나게 된다.  
유물 안내에 그저 조선시대 석양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어느 무덤을 지키다가 이곳에 서 있게 되었는지 내력은 알 수 없다.  
양의 얼굴은 마모가 되어서 알아볼 수가 없지만  
휘어진 빨의 모습, 다리의 마디, 머리의 윤곽을 보면  
정성 들여 만든 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원래 지켜야 할 주인은 잃었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강한 빨로 박물관을 잘 지켜 주기를.



# 한국박물관회연맹(KFFM)

Korean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

한국박물관회연맹(KFFM)은 국내 박물관 후원 단체가 모여 박물관의 발전 및 후원인, 후원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 결성되었다. 현재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후원회와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WFFM 부회장을 맡아 아시아-아프리카-태평양 지역 박물관 후원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014 WFFM 베를린 총회 및 학술대회

- 2014. 5. 15(목) ~ 18일(일)

오는 5월, 제 15회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학술대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박물관 후원인 및 후원 단체의 발전을 위해 3년마다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학술발표와 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	주요 행사
5/15 (목)	<b>이사회 및 총회</b> Bode Museum(보데박물관) ■ 문화탐방 : Museumsinsel(박물관섬), Boros Collection(보로스 현대미술 컬렉션) ■ 독일시장 호스트 리셉션-베를린시청
5/16 (금)	<b>학술대회 1일차</b> Konzerthaus(콘체르트하우스) 주제 1 : How to recruit and keep friends 주제 2 : How to find, compensate and insure volunteers? ■ 문화탐방 : Hackesche Höfe(하케슈마켓), 베를린 시티투어(Nikolaiviertel, Stadtschloss, Brandenburger, Unter den Linden-Gendarmenmarkt) ■ 독일은행 호스트 리셉션
5/17 (토)	<b>학술대회 2일차</b> Konzerthaus(콘체르트하우스) 주제 3 : Different ways of supporting a museum : money, know-how, public relations 주제 4 : Responding to museums priorities : fundraising ■ 문화탐방 : Jewish Museum(유대인박물관), Berlinische Galerie(베를린갤러리) Charlottenburg Palace(샤를로텐부르크 궁전)
5/18 (일)	<b>학술대회 3일차</b> Konzerthaus(콘체르트하우스) 주제 5 : "Young Friends" and "Social Media" ■ 문화탐방 : Kulturforum(문화포럼)

※ 참가비/등록 및 세부일정 확인 [www.wffm2014berlin.com](http://www.wffm2014berlin.com)

대한민국의 박물관을 후원합니다. 문의\_한국박물관회연맹 사무국 02-2077-9793

# 박물관 후원하기

국립중앙박물관회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보다 손쉬운 참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립중앙박물관회 홈페이지  
www.fnmk.org로 접속  
화면상단 후원하기 클릭



»» 문화의 힘으로 국격을 높이는 일,  
인류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일,  
그 뒤에는 문화예술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회  
전화 : 02. 2077. 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회장을 거쳐 2011년 11월 金正泰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金正泰  
 副 會 長 | 申聖秀 洪錫肇  
 理 事 | 金英那 金信韓 金斗植 南秀淨 朴殷寬  
           尹碩敏 尹在倫 李健茂 李圭植 許榕秀  
           洪政旭 禹燦奎 鄭溶鎭  
 監 事 | 金教台 朴禎原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원, 은관 삼천만원, 청자 일천만원, 백자 오백만원, 수정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현무회원

하나금융그룹 金正泰

## 천마회원

千信一      세종옛돌박물관장  
 孫昌根      소장가  
 尹章燮      호림박물관 이사장  
 SK에너지    申憲澈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 금관회원

俞相玉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팬택&큐리텔 朴炳燁  
 (주)한섬      鄭在鳳  
 (주)STX      姜德壽  
 朴容允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鄭明勳      서울시향 고문  
 權俊一, 具在善 Actium 부회장  
 庚園      광제사 주지  
 鄭溶鎭      신세계 부회장  
 都炯泰      갤러리현대 부사장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李垞旻      프라이머 대표

尹在倫      서울대학교 교수  
 許榕秀      GS에너지(주) 부사장  
 洪政旭      (주)헤럴드 회장  
 南秀淨      (주)썬앳푸드 대표  
 金信韓      대성 부사장  
 李明姬      일우재단 이사장

## 은관회원

柳昌宗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金鍾漢      (주)종합전기 대표  
 成弼鎬      광성기업 대표  
 徐載亮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柳芳熙      (주)풍산주택 회장  
 金寧明      (재)에올 이사장  
 趙顯相      효성그룹 부사장  
 최철원      M&M(주) 사장  
 金承謙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부사장  
 姜院基      오리온 대표  
 李圭植      경신금속 대표  
 金芝延      (주)컨셉 대표  
 李教祥      서울가든호텔 부사장  
 金英姬      회원  
 朴禎原      (주)두산 사장  
 梁洪碩      대신증권(주) 사장  
 許允秀      (주)ALTO · (주)ALTEK 부사장

## 청자회원

申硯均      아름답기 이사장  
 朴仙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田永采      한길봉사회 이사장  
 金永斌      김&장 법률사무소  
 玄明官      일진홀딩스(주) 대표  
 許正錫      OCI 사장  
 李宇鉉      스무디킹코리아(주) 대표이사  
 金性完      수원대학교 이사장  
 李仁洙      2014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金榮秀      호성홍업회장  
 胡鍾一      성암고서박물관장  
 趙炳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愼昌宰      남양유업 전문위원  
 李雲卿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삼표산업  
 李美淑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在昊      열화당 대표  
 李起雄      법무법인 세종 대표  
 辛永茂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辛炳讚

朴載蓮 성곡미술관 이사  
 李鈴子  
 朴海春  
 金宗學 서양화가  
 한국도로공사  
 玄智皓 (주)화승R&A 부회장  
 金南延 (주)동훈 대표이사  
 金寧慈 (재)예을 명예이사장  
 金正宙 (주)NXC 대표이사  
 梁汰會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丁恩美 블룸앤코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崔惠玉 회원·자원봉사  
 洪誠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崔世勳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朴世昌 금호타이어 부사장  
 崔杜準 (주)동남유화 부회장  
 李海珍 NHN(주) 이사회이사  
 金澤辰 (주)엔씨소프트 대표  
 李善眞 목금토갤러리 관장  
 洋賢財團  
 薛允碩 대한광통신 사장  
 李英純 한국미술협회회원  
 朴正遠 재미교포  
 金載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金仁順 한국고미술자기연구소  
 朴知原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曹在顯 경기도 문화의전당 이사장  
 曹榮美 경동소재 대표이사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兌炫 성신양회(주) 사장  
 Joseph Bae KKR Asia 대표  
 具本商 LIG 넥스원(주) 부회장  
 朴善正 대선제분(주) 상무  
 金裕錫 행남자기 대표이사  
 咸泳俊 (주)오뚜기 회장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高基瑛 (주)금비 사장  
 尹賢慶 동화약품 이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崔仁善 회원  
 吳勝敏 동일산업(주) 부사장  
 俞承熹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李宰旭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李萬圭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趙希卿 (주)가온소사이어티 대표  
 朴宣注 영은미술관 관장  
 尹寬 BlueRun Ventures 대표

林鍾勳 한미IT(주) 대표이사  
 柳智勳 영남제분 부사장  
 李濬宇 흥아해운 전무  
 楊仁集 진로재팬 대표  
 尹勝鉉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吳治勳 대한제강 대표이사 사장  
 李學俊 서울옥션 대표  
 李芝衡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京姬 (주)피오나조경 대표이사  
 韓惠舟 화정박물관 관장  
 柳英芝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李胤基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崔再源 SK부회장  
 李甲宰 삼일회계법인 전무  
 姜承模 한국석유그룹 사장  
 全裁範 금강공업 부사장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成來恩 영원무역 전무  
 張升準 매경미디어그룹 전무이사  
 李宇成 이테크건설 전무  
 許允烘 GS건설 상무  
 張仁宇 선인자동차 대표이사  
 朴廷彬 신원 부회장  
 具本赫 LS-Nikko 동제련 상무  
 禹燦奎 학교재 대표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徐東姪 회원  
 金教台 삼정회계법인 대표  
 宋哲 성문출판사 대표  
 千碩圭 천일식품 대표  
 金萬玉 회원  
 金東官 한화 큐셀 기획실장  
 洪正國 (주)BGF리테일 이사  
 陳在旭 하나UBS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崔正勳 대보건설(주) 이사  
 崔雄善 (주)인팩 대표이사  
 朴璟鎭 (주)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洪正道 JTBC 대표이사  
 沈宗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金倫壽 지리산 문학관 관장  
 李柱翰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李常宰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李周成 세아제강 상무이사  
 金恩惠 서울도시가스 이사  
 許辰秀 SPC(주) 상무  
 洪範碩 (주)남양유업 부장  
 具本權 (주)LS 과장